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이 병 기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변화
3.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과정 분석
4.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전략
5.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교육과정(curriculum)을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만큼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학교제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늘 외부로부터 존재가치와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다. 학교도서관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학교 자체는 물론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 문제는 생존의 문제며, 학교도서관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이기도 하다.

지식정보사회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말하거나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방향을 언급하고자 할 때 학생중심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별 학습, 탐구 수업, 수행평가, 창의성 교육, 사고력 교육 등이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이념이나 방법은 모두 획일적인 지식 전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접하고 스스로 이 정보자료를 탐구하고 적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인간 육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사조는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보고, 읽고, 보고, 듣고,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학교도서관의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사서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가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선택, 수집, 정리하여 단순히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서교사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도 학교도서관의 이념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서교사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시설·자료를 갖추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사서교사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수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서교사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등의 교수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일반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수업을 전개하려는 의지와 자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도서관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유능한 사서교사를 배치한다고 해서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과정의 이념을 완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사서교사가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학교도서관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변화

의도적, 계획적, 합목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학습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1].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교육 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즉,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 교육 과정은 단순한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이나 운영 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요 관심사였다. 195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 문헌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 참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rentzman[2]는 1950년에 사서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Hunt[3]는 사서교사는 수업 코디네이터로서 독서교육을 매개로 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학교도서관에 관한 고전으로 알려진 Fargo의「The Library in the School」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로서 독서교육과 교과교사와의 협력활동을 들고 있다[4]. 그 후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한 연구자로서 W. L. Davis가 있다. Davis는 학교도서관의 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과-통합형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교과-통합형 수업은 일정한 교과 수업 시간을 확

1)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1994,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동아출판사, p.10
2) S. M. Krentzman, "School Libraries: 1949-1950 A Summary," Library Journal 75: 1022-23 (June 15, 1950), p.1
3) H. Hunt, "As the Educator Views the Library," School Activities and the Library (Feb. 1950), p.2.
4) L. Fargo, The Library in the Schoo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n., 1947), p.22.

보할 수 없었던 사서교사가 다른 교과 특히, 영어 시간에 일정 시간을 담당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이었다. 반면에 1958년에 Ahlers는 다른 교과 시간을 빌려서 도서관 이용지도를 담당하는 교과-통합형 수업을 지양하고, 모든 교과의 수업과 도서관이용지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다[6].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교육계에 널리 전파되면서 학생자율학습, 팀 티칭, 교과간의 연계 등이 강조되면서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관계가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대변할 만한 문헌으로는 미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학교도서관 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① 교과교사가 필요로 할 때 사서교사가 교실의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 ②팀 티칭의 일원이 되는 것 ③ 교수설계를 위해서 교과와 협력하는 것 ④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사와 협력하는 것 ⑤ 학교도서관 이용에 관한 수업을 담당하는 것 ⑥ 자료의 제공 및 생산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7].

1970년대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은 문제해결능력 및 연구능력 신장을 강조하게 되었고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자율학습능력 신장을 위해서 도서관이용기술을 직접 가르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8]. 1975년에 발행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교육과정 개발 참여, 교육과정과 교수매체에 적합한 교수설계의 상담을 들고 있다[9].

198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과거의 도서관 이용지도나 독서교육 대신에 정보활용능력이 강조되고, 정보활용능력을 매개로 하여 교육과정과 통합을 시도하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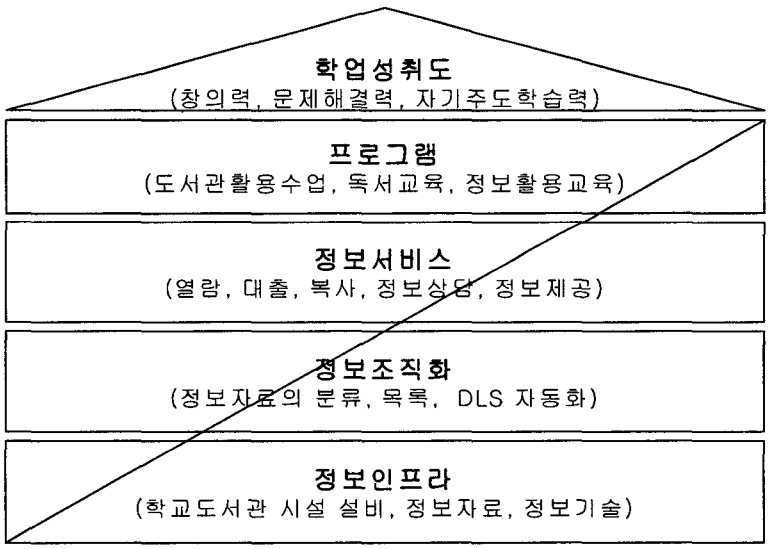
Eisenberg and Berkowitz는 「Curriculum initiative: an agenda and strategy for library media programs」에서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폭증으로 사서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평생학습기술(lifelong learning skills)신장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5가지를 제시하였다[10].

---

5) W. L. Davis, "A New Look at School Library Service," School Activities and the Library (Feb. 1953), p.12.
6) E. E. Ahlers, "Developing Library Skills: Whose Responsibility?" School Activities and the Library (1958), p.1-2.
7)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the Department of Audiovisual Instruc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n., 1969), p.8.
8) M. H. Grazier, "A Role for Media Specialists in the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School Media Quarterly 4:199-204 (Spring 1976), p.201.
9)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LA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Media Programs: District and Schoo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n. and Ass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75), p.6-7.
10) Eisenberg, Michael B. and Berkowitz, Robert E. Curriculum initiative Norwood, NJ: Ablex Publishing

① 통합 매체의 개념에 의한 장서 관리
② 독서(문학) 및 정보매체의 이용지도
③ 교과 교육과정과 통합한 정보활용능력 교수
④ 교육과정과 교수설계에 있어서 컨설턴트, 기술인지를 통한 에이전트 혹은 분석가로서의 활동
⑤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미디어센터의 관리를 넘어서 정보관리에 대한 책임

1988년에 발표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에서는 사서교사의 역할을 정보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수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교사의 교수설계 과정을 지원하는 교수설계자로 규정하고 있다.[11]



〈그림 1〉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의 개념도(로어스춰의 원문을 부분적으로 수정함)

또한, 1998년에 개정한 학교도서관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로서 정보활용능력의 신장을 들고 있으며, 일반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을 통합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삼고 정보활용능력의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12].

Corp., 1988

11)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12)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oertscher는 학교도서관의 기본구조를 〈그림 1〉과 같이 계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13]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은 도서관활용수업(협력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이라는 3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Loertscher는 학교도서관을 생각할 때 보통은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정보인프라"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최상위의 학업성취도(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와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학교도서관계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관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서교사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점진적으로 정보 활용 교육이라는 고유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과교사와의 협력수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과정 분석

학교도서관이 고유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과교사와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 것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한국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23조에 의하면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 법률 제07120호)."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법제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결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Student Learning.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8.

13) Loertscher, David V. Taxonomies of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Inc. 1988

정하고, 이를 문서로 고시하고 시행한다. 정부수립 이후 크게 7차례에 걸쳐 고시(공포)된 교육부의 교육과정 문서가 있으며, 이것이 곧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 현재는 19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14]이 초·중등학교의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고시한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곧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보다는 단위 학교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준거로 삼아야 할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시·도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에 의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작성한다. 이것이 곧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 단위 학교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것이 곧 학교 수준의 교육이다. 또한, 단위 학교의 교과 담당 교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계획(연간, 월간, 주간, 차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며, 이를 교사수준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는 단위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교육부→시·도교육청→단위 학교→교사 순으로 상위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기본 이념 하에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크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활동을 채택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영역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방향, 학교급별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총칙에 해당한다. 그리고 〈교과〉 영역은 교육과정의 총칙에 준하여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내용체계, 학년별 내용), 교수방

14) 교육부, 199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법, 평가 순으로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과 영역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초·중등학교의 교과서가 개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총칙 부분에서는 학교도서관이나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의 이념을 담고 있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각 교과 영역에서도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각 교과서에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 교과의 학년별 내용체계에 부분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표 1〉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학교도서관 관련조항

내 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4학년 쓰기 영역〉 (2)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기본)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어린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선정하여 글을 쓴다. (심화) 주제에 알맞은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글을 쓴다.
〈5학년 말하기 영역〉 (2) 조사나 관찰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심화)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안다.
〈5학년 읽기〉 (8) 도서관에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기본) 도서관에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다. (심화) 도서관에서 읽을거리를 찾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독서-내용별 영역〉 3 독서 습관 ① 평생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서점과 도서관을 즐겨 찾는다.	
〈독서-4. 교수-학습 방법〉 사.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재량활동은 학교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보장과 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을 신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한다. 교과재량활동은 교과와 관련된 선택과목 학습 혹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통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범 교과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재량활동 중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의 요구에 의거 〈표 2〉와 같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사서교사 정규시간을 확보하여 독서교육, 도서관이용지도, 정보활용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창의

적 재량활동 시간을 편성하기보다는 교사의 수급, 예를 들면 사회과 교사의 과원 T/O가 발생하면 사회 과목과 관련된 창의적 재량활동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의지에 관계없이 정규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 2〉 재량활동의 학교 급별 연간 수업 시간 수(단위)

영 역	학교급 / 하위영역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교과 재량활동	선택과목 학습	68시간	102시간	68~102시간 (4~6단위)
	국민공통기본교과 심화·보충 학습			68~102시간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34시간	34시간(2단위)
	자기주도적 학습			
계		68시간	136시간	204시간(12단위)

3.2 미국

미국의 경우에 연방헌법과 주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제외하고는 주의회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없으며, 각 주에 따라서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주 의회는 교육과정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주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각 주나 지역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는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교과목별로 제시하기보다는 학과별로 일반적인 표준(학업표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주의 지침에 따라 학구의 수준에서 개발 된다[15].

일반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한 각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적용 방법 또한 다양하다.

크게는 주 수준의 학업표준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와 전문단체(예를 들면 각주의 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제시한 학교도서관 관련 교육과정을 주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교육청 즉, 학교구(school district) 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1 주 수준의 교육과정 연계

주 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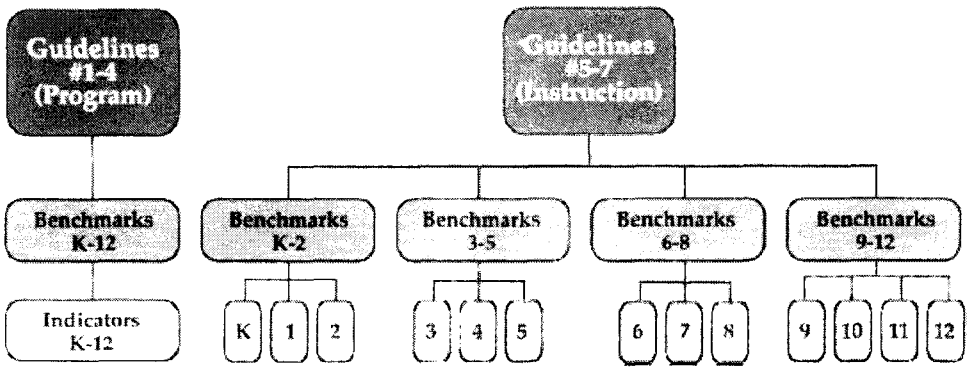
15) 강현석 등, 2004, 현대교육과정과 교육평가, 학지사, p.278.

주, 오하이오 주와 펜실베니아 주를 들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의 학과의 학년별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표준교과(standard course of study)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교과에는 예능, 컴퓨터·기술, 영어, 보건, 수학 등의 교과와 더불어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skill)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정보활용능력 과목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이념, 가르쳐야 할 주요 교육내용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보활용능력의 이념 부문에서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서는 정보활용능력과 교과목을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에 접근, 분석, 평가, 조직,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6]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과 일반 교과목간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하이오 주는 교육위원회(the 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의 성격을 갖는 학과별 학업표준(academic content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하이오 주의 최상위 교육과정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학과별 학업표준에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연구, 예능, 외국어, 기술 등 7개 학과와 더불어 도서관(Library)이라는 학과(discipline)를 제시하고 있다(Ohio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of Curriculum, 2004).

도서관 학과표준은 7개의 학과와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도서관 학과표준은 7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고, 가이드라인 별로 학년별(K-12) 표준(benchmarks)과 달성해야 할 수준 즉 지표(indicator)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오하이오 주의 도서관 관련 교과 지침 구성도

16)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05, Information Skills Curriculum, 〈http://www.ncpublicschools.org/curriculum/information/preface.htm#Philosophy〉

7개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운영지침과 교수적 지침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리적 지침은 학교도서관이 학과별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운영 지침을 정한 것으로 도서관 경영(library management), 장서개발과 교육과정(collection development and curriculum), 리터러시와 독서교육 지원(literacy and reading support), 도서관 기술(library-based technology)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수적 지침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정보기술 리터러시(technology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별로 표준(benchmarks)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학년별로 이 표준에 도달해야 할 세부 지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반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3(리터러시와 독서교육 지원), 가이드라인 5(정보활용능력)의 표준과 세부지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3-독서교육〉

○ 표준(benchmark)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생학습 및 여가활동을 위해서 교과와 통합하고,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K-12학년 공통 표준 및 지표

표준A: 학생들의 독서 수준, 흥미, 정보요구에 맞추어 독서자료의 위치와 선정에 관한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① DDC, LC와 같은 도서관 자료의 분류체계 이용
② 도서관 자료의 목록 이용
③ 도서, 시청각 자료, 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의 독서 자료 이용
④ 독서 활동 촉진을 위한 전시 및 게시
⑤ 독서자료 선택
⑥ 표제지, 참고문헌, 부록, 목차 등 정보자료의 구조
⑦ 1차자료와 2차자료의 구별

표준B: 독서교육 제공

① 정보, 오락, 평생 학습 등 상황에 따른 독서자료 선택
② 독서 중에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한 과제 부여
③ 글 속에 포함된 그림, 삽화, 차트, 표 등에 대한 토의
④ 독서 중에 소설, 비소설 그리고 시 등 다양한 글 속에 주요 테마 확인
⑤ 영화, 소설 등에서 주인공의 성격 파악 및 토론하기
⑥ 다양한 독서자료에서 원인 · 결과, 비교 · 대조, 사실 · 의견 등을 구분하기

⑦ 정보내용을 연대 혹은 중요도 순으로 열거하여 저자의 의도 파악하기
표준C: 스토리텔링 및 범교과 독서활동 제공
① 구두, 그림, 시, 노래, 행동, 역할극 등으로 스토리텔링하기
② 정보기술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독서활동
③ 말하기, 듣기, 쓰기, 보기의 통합적 활동
표준D: 독서 상담 조언
① 추가적인 독서자료에 대한 게이트웨이로서의 도서관 활동
② 학교도서관에 없는 독서자료의 획득 방법
③ 북토크 제공
④ 독서 관련 시상 안내
표준E: 독서 주간 등 주 혹은 국가 수준의 독서 프로그램 참여

〈가이드라인 5-정보활용교육〉
○ 표준(benchmark)
사서교사는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활용능력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처리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활용교육은 학과별 학업표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과정으로 가르쳐야 한다.
○K-12 중 초등학교 3학년 표준 및 지표
표준A: 교과 학습, 흥미 등 상황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 자료, 직원 접근
① 교과학습 및 정보요구에 따른 학교도서관 방문
②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 직원 면담
③ 참고도서, 멀티미디어 코너 등 학교도서관의 공간 파악
④ 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학교도서관의 자료 유형 파악
⑤ 학교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요령
⑥ 대출 자료의 정시 반납
⑦ 학교도서관 정보자료의 보호 요령
⑧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활용
표준B: 학교도서관 정보자료의 조직체계와 탐색방법 이해
① 저자명에 의한 알파벳순 배열 이해
② 서가상의 DDC 배열 체계
③ 단행본, 소설, 비소설류의 구분 이해
④ 저자명, 서명, 주제명에 의한 목록 탐색

표준C: 교과학습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문헌의 탐구와 이용
① 사서교사에 의한 스토리텔링 청취
② 독서 자료의 주인공, 플롯, 주제 이해
③ 시리즈 도서의 이해
④ 여가 및 정보를 위한 독서
표준 D: 사실과 의견, 1차 정보원과 2차 정보원 등의 자원 유형 식별
① 데이터, 정보, 지식의 구별과 사례
② 요구에 따른 정보 수집 방법(정보원의 구별)
③ 1차정보원과 2차정보원의 이용
표준 E: 정보탐색, 이용과정을 연구과정에 적용
① 이용가능한 정보원과 키워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② 정보탐색 수집 계획
③ 학교도서관에 있는 자료 탐색
④ 수집한 정보의 요약 및 노트 정리
⑤ 논리적 순서로 정보 재구성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헌
⑦ 언어 혹은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기
⑧ 연구 프로젝트 평가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에는 주법(Pennsylvania Code)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총 365부로 구성된 펜실베니아 주법의 제22부(education), 제4장(chapter)에서는 초·중등학교의 학업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학업표준의 총론 부분에서는 각 학과에 대한 학업표준과 더불어 평생학습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른 학과와 통합하여 정보활용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의 내용범위(scope)와 계열(sequence) 그리고 k-12 교육과정과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등이 협력하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법의 4.21, 4.22, 4.23 조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지침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4.21, 4.22, 4.23 조항 중에서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21 초등학교 교육〉

(e)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매년 다음과 같은 계획적인 교육(planned instruction)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계획적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강좌와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수업을 말한다.

(1)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통합 활동, 도서관 이용 및 정보 관리

〈4.22 중학교 교육〉

(b)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subjects)는 물론 비판적 사고능력의 계발,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매년 다음과 같은 계획적인 교육(planned instruction)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계획적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강좌와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수업을 말한다.

(6) 전통적 자료와 전자정보원, 컴퓨터 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활용교육

〈4.23 고등학교 교육〉

(b)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에는 정보 분석 및 종합, 평가,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c)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매년 다음과 같은 계획적인 교육(planned instruction)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계획적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강좌와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제적인 수업을 말한다.

(7)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의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교육; 전통적인 자료와 전자 정보원 및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활용교육

3.2.2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 연계

미국의 경우에 전문단체, 예를 들면 각주의 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제시한 학교도서관 관련 교육과정을 주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과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대표적으로는 메사추세추 주, 텍사스 주, 콜로라도 주 등이 있다.

메사추세추 주의 학교도서관미디어협회(Massachusetts School Library Media Association)에서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의 기준(Standards for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을 작성하고, 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 채택함으로서 주내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원, 장서, 예산, 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정보활용교육 등 학교의 교

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보활용교육 영역을 살펴보면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정보자원의 탐색, 정보의 선정 및 평가 종합, 다양한 형태로의 정보 표현에 관한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17]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수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에는 도서관위원회에서 작성, 제시한 학교도서관기준(Texas school libraries: standard, resources, services and student's performance)을 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교도서관기준은 도서관프로그램 관리, 도서관 학습 환경, 교육과정 통합, 자원, 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 통합 부분을 살펴보면 "사서교사는 문제해결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탄력적인 시간표 운영(flexible scheduled environment)에 의거 교과교사와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협력해야 할 영역으로서 수업 단원에 대한 협력적 계획, 협력적 수업, 직원 연수, 교수자료 준비, 정보활용능력 수업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서교사는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 활동에 4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 탄력적인 시간표 운영(flexible scheduled environment)은 과거에 학급 단위로 학교도서관에서 수업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학교도서관의 정보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 텍사스의 도서관위원회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텍사스 내에 있는 학교도서관의 3/4 이상이 교육과정 통합 활동에 참여하고, 80% 이상이 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콜로라도 주의 경우에는 주 도서관(Colorado State Library)에서 제시한 학교도서관기준(Standards for Information Literacy and School Library Programs)을 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 채택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전임 사서교사 배치, 기술적 · 사무적 보조직원의 배치,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협력 그리고 정보활용능력과 교과학습의 통합, 충분한 정보자원의 확보, 협력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탄력적 시간표 운영 등을 들고 있다.[20]

---

17)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ducation, School Library Media Association, 1997,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http://www.doe.mass.edu/mailings/1997/cm050797.pdf〉, p.35

18) Texas State Library and Archives Commission, 2001, Libraries and School Library Programs: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exas, 〈http://www.tsl.state.tx.us/ld/pubs/schlibsurvey/survey.pdf〉, p.13

19) Texas State Library and Archives Commission, 2001, Texas school libraries: standard, resources, services and student's performance, 〈http://www.tsl.state.tx.us/ld/pubs/schlibsurvey/survey.pdf〉 p.68

20) Colorado State Board of Education, Standards for Information Literacy and School Library Programs, 2002, 〈http://www.cde.state.co.us/litstandards/download/CSAP_Handbook.pdf〉, p.2

3.2.3 학교구 수준의 교육과정 연계

미국의 학교구(school district)는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 교육청에 해당한다. 학교구에서는 주 교육위원회의 학업표준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반영하여 학교구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교구 수준에서 학교도서관과 학과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콜로라도 주내에 있는 보울더 밸리(Boulder Valley) 학교구가 있다.

보울더 밸리 학교구 교육위원회에서는 K-12 학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정하고 있다.[21] 이 지침에는 언어, 사회, 보건, 수학, 과학, 음악 등 학과에 대한 교육 목표와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서관 연구와 정보수집기술(library, research and information gathering skills) 학과가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연구와 정보수집기술 학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연구와 정보수집기술〉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효과적인 지식 · 정보의 이용자가 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의 모든 활동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도서관 연구와 정보수집기술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 연구와 정보수집기술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의 정보자원 접근 능력

둘째, 다양한 문헌의 유형에 대한 이해 및 문학 감상

셋째, 연구과정에 대한 능력

한편, 미국의 교육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캐나나 온타리오 주의 더람(Durham) 학교구 위원회[22]에서는 영어, 불어, 수학, 과학 등의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서관(library) 학과를 포함시키고 있다. 각 학과 내에는 학년별 교과목 및 학교구위원회에서 승인한 교과서가 소개되어 있다. 도서관 학과 내에는 정보와 전자리터러시(infomation and electronic literacy)라는 교과목과 해당 교과서가 제시되어 있다.

---

21) Boulder Valley School District, BVSD Parents' Guides to Curriculum, 2005 〈http://www.bvsd.k12.co.us/newcurriculum/parentsGuideCurriculum.asp〉

22) Durham district school board, Curriculum Materials Catalogue 2004-2005, 2004, 〈http://ddsb.durham.edu.on.ca/catalogstage/Table_of_Contents.htm〉

3.3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학교교육법시행규칙(1947년), 문부성령 제11호」에 의거 문부성에서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다. 전후 최초의 교육과정은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의미로 "교과과정"이라 하였으나 그 후에는 교과 이외의 영역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의미로 "학습지도요령"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1947년 최초로 발표된 이후 1951년, 1958, 1969년, 1977년, 198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하였고, 1998년(평성 10년)에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소위 신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여 소학교와 중학교 2002년, 고등학교 200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은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 교과, 특별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평성 14년)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에 총합적인 학습시간을 추가하여 소·중학교는 4개 영역, 고등학교는 3개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총설,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과정의 편성, 각 교과 및 특별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총설 부문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소학교의 경우에는 제1장 제5의 2(8)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장 6의 2(9)항에 각각 "컴퓨터 등의 교재·교구 활용"과 "학교도서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2가지 요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3].

첫째, 컴퓨터 등의 교재·교구활용: 각 교과 등의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이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의 정보수단에 익숙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학습활동을 충실히 전개하고, 시청각교재나 교육기관 등의 교재·교구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것.

둘째, 학교도서관의 활용: 학교도서관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그 기능의 활용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주체적, 의욕적인 학습활동과 독서활동을 충실히 할 것.

이와 동시에 제2장(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공작, 가정, 체육)의 각 교과 제1절에는 학습지도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어과 지도계획의 작성 및 각 학년별 내용의 취급에 "독서의욕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독서활동을 활발히 행하도록 하되, 다른 교과의 독서지도와 학교도서관 독서지도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행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는 총 이수단위수를 80에서 74단위로, 필수교과 및 과목별 단위수도 보통과인 경우 33단위에서 31단위로, 전문·총합과인 경우 35단위에서 31 단위로 축소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해서 "정

23) 文部省, 平成11年(1999),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pp.87-89. 文部省,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pp.100-103. 文部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pp.192-194.

보" 교과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소학교 3학년 이상부터 공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총합적인 학습시간"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과 매우 유사하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 신설된 총합적인 학습 시간은 ①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보다 잘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기르는 것, ② 배우는 방법이나 사물을 생각하는 법을 몸에 익히고, 문제의 해결이나 탐구활동에 주체적 · 창조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신이 사는 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합적인 학습시간의 지도내용에 대하여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국제이해, 정보, 환경, 복지 및 건강 등의 체험적인 학습, 문제해결적인 학습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취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에서 학생이나 지역의 실태를 토대로 창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하게 일본의 학교도서관계에서도 총합적인 학습시간을 이용하여 독서교육이나 도서관 이용지도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4].

또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는 모두 특별활동 영역에 "자주적인 학습태도 형성과 학교도서관의 이용 및 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는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위 학교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국가수준 혹은 지역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 이념이나 방법,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초등학교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읽기, 쓰기 영역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음으로 시 ·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이나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에는 주 수준 혹은 학교구 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학교구 수준의 교육과정에 다른 학과 혹은 교과와 아울러서 "도서관",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다른 교과와의 통합 및 교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교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

24) 宅間續一, 2002, 學校圖書館を活用する學び方の指導,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p.17

략으로 고정적 시간표(fixed schedule) 대신에 탄력적 시간표(flexible schedule)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에는 신학습지도요령의 총설 부문에 "컴퓨터 등의 교재 · 교구 활용"과 "학교도서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과정에 삽입되어 있는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에 비하면 매우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총설 부문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각 교과 영역이나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소학교 3학년 이상부터 공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총합적인 학습시간을 신설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 전략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비교 ·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학교도서관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4.1 도서관활용수업 제도화

학교도서관의 환경을 잘 조성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과 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교과의 교육과정을 전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도서관활용수업은 불가능하다.

2001-2003년 사이에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에 의거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349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당 도서관활용수업의 실태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도서관활용수업에 참여하는 주당 교과목이 "3과목 이하"라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활용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수가 5명 이하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25]. 따라서 관심 있는 일부 교사들이 한정적으로 도서관활용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교사의 자율적인 의지에 맡기다 보면 특정 교사와 교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활용수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국민공통기본 교육과〉에 "국민공

25) 변우열, 이병기 등, 2004,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및 DLS 운영 현황과 효과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p/35-36.

통기본교과는 한 학기 당 최소 5시간 이상 도서관활용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도서관활용수업은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연간 계획 및 단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서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평가할 수 있다"와 같이 삽입함으로써 도서관활용수업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4.2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시간의 확보

독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사고력 신장 및 교과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비롯하여 학교도서관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서는 좋은 것이니 무조건 읽으라는 방관적 독서교육이나 1년에 1~2회 실시하는 독서감상문 발표대회, 독서퀴즈대회 등의 이벤트성 교육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독서교육은 좋은 책을 바르게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읽도록 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독서 자체가 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주요 생활 즉, 교과학습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 학습과 독서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서=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이나 국어 담당 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과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독서 활동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도서관활용수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 교과는 한 학기에 최소 2시간 이상 학교도서관에서 교과와 관련된 독서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와 같이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활용교육(Information Literacy)을 정규 커리큘럼의 일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001년도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96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도서관 정보교육이나 이용지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82.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유인물로 1~2시간 정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는 교과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사무 분장의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정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데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사서교사는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도서관활용수업 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교양선택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정보활용교육을 해야 한다."와 같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

---

26) 한상완, 이병기 등, 2002,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53.

4.3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 체계 확립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다른 교과목처럼 학교도서관에서 다루어야 할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을 설정하여 삽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오하이오 주의 학업표준에는 다른 학과 및 교과와 더불어 "도서관 혹은 정보활용능력"에 관한 교육내용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범위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다루어야 할 내용의 영역으로서 어디에서 어느 수준까지를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계열은 교육내용이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순서로서 어느 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혹은 동일 학년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원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다만,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은 내용으로 볼 때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교육과정의 운영상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위해 정규시간을 확보하고,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서와 정보생활", "독서와 정보활용" 등의 명칭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범위와 계열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에는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과의 성격, 목표, 학년별 내용체계(범위와 계열), 교수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형태로 학교도서관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4.4 탄력적 시간표(블록형 시간표) 운영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을 매개로 하여 학교도서관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시간표(flexible schedule)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1시간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27]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부분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0분, 45분, 50분으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시간표로는 시간이 너무 짧고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7) 교육인적자원부, p.6

7th/8th Grade Schedule 2001-2002

Tim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8:50-8:57	Advisory	Advisory	Advisory	Advisory	Advisory
9:00	Math (Block 1A) 9:00-9:55	Humanities (Block 2A/B) 9:00-10:55	Studio 9:00-9:45	Math (Block 1A) 9:00-9:55	Humanities (Block 2A/B) 9:00-10:55
9:15					
9:30					
9:45			Physical Education 9:50-10:40		
10:00	Science (Block 1B) 10:00-10:55			Science (Block 1B) 10:00-10:55	
10:15					
10:30					
10:45			Lunch 10:40-11:00		
11:00	Physical Education 11:00-11:40	Math (Block 1A) 11:00-11:55	Math (Block 1A) 11:05-11:45	Humanities (Block 2A/B) 11:00-12:55	Elective 11:00-11:40
11:15					
11:30					
11:45	Lunch 11:40-12:00		Science (Block 1B) 11:45-12:30		Lunch 11:40-12:00
12:00	Studio Program 12:05-1:30	Science (Block 1B) 10:00-10:55			Studio Program 12:05-1:30
12:15					
12:30			Humanities (Block 2A/B) 12:35-2:00		
12:45					
1:00		Lunch 1:00-1:20		Lunch 1:00-1:20	
1:15		Elective 1:25-2:05		Physical Education 1:25-2:05	
1:30	Humanities (Block 2A/B) 1:35-3:00				Math (Block 1A) 1:35-2:15
1:45					
2:00		Advisory 2:10-3:00	Advisory 2:05-3:00	Advisory 2:10-3:00	
2:15					Science (Block 1B) 2:20-3:00
2:30					
2:45					
3:00					

〈그림 3〉 블록형 시간표의 사례[28]

따라서 학교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시간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학교도서관협의회(AASL)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교과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탄력적인 시간표 운영을 들고 있다. 탄력적인 시간표 운영은 요일별로 특정 학급이 특정 시간에 학교도서관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학급에서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할 때 개인, 집단, 학급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탄력적인 시간표 운용을 위한 방편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블록형(block) 시간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한 사례는 〈그림 3〉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학교도서관은 이 교육과정을

28)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2005, Block Scheduling, 〈http://www.newvisions.org/schoolsuccess/practices/block/index.shtml〉

효과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은 21세기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교도서관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으며, 왜곡된 교육 현실로 인해 학교도서관은 물론 사서교사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다행히, 2003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 의거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는 충분하진 않으나 점진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적 이념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서교사의 배치 율이 전국적으로 239명(2.2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반문할 수도 있으나,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학교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이란 인식하에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미국, 일본의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의 이념이나 방법,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다소 선언적이지만 신 학습지도요령의 총설 부문에 "컴퓨터 등의 교재·교구 활용"과 "학교도서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주 수준 혹은 학교구 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학교구 수준의 교육과정에 다른 학과 혹은 교과와 아울러서 "도서관",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다른 교과와의 통합 및 교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시간의 확보,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 체계의 확립과 교과목화, 탄력적 시간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